

[기획]

“반드시 ‘코리안 드림’ 주인공 되겠다”

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중기획

그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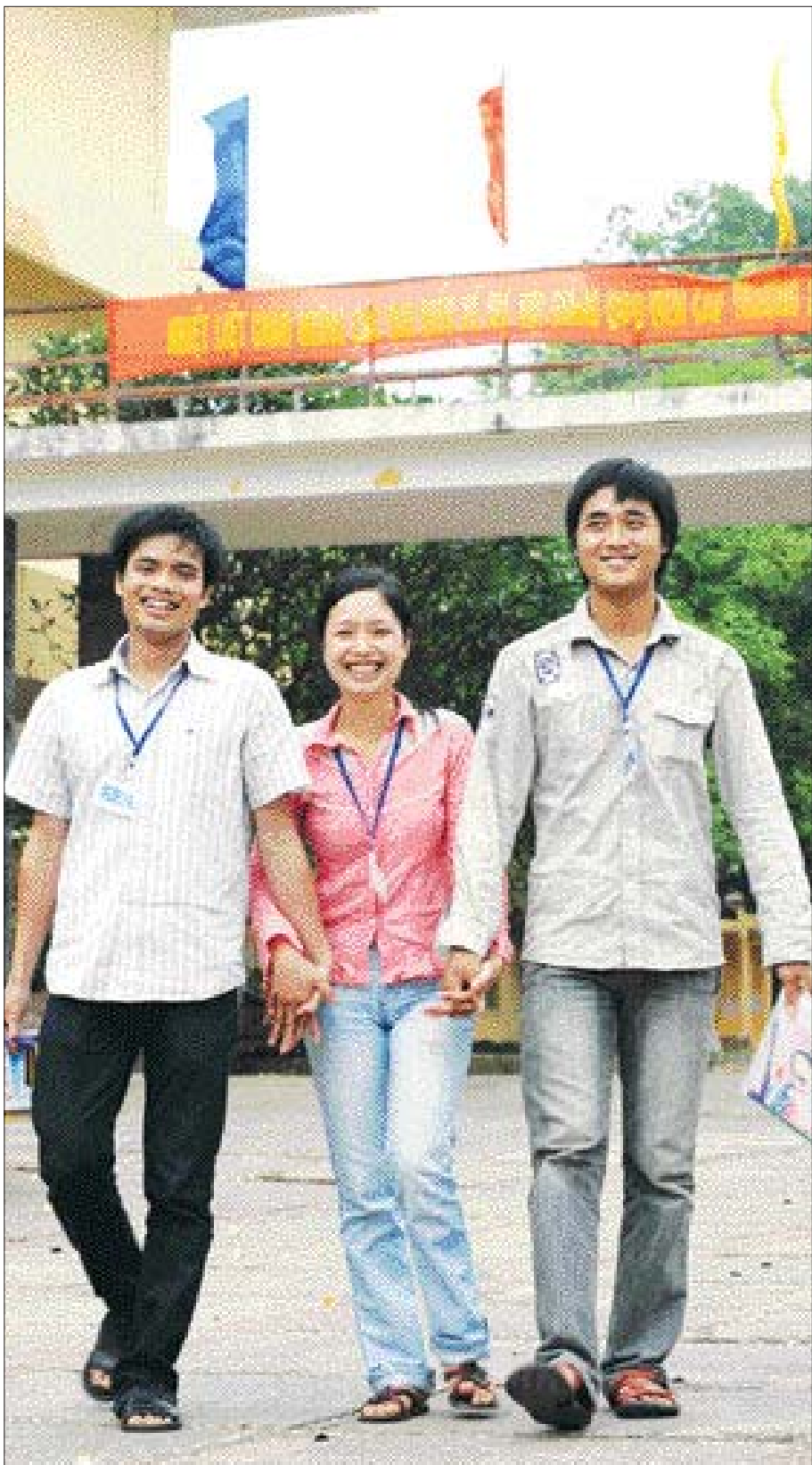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꿈에도 그리던 ‘한국행’이 결정돼 가슴이 설립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코리안 드림’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최근 베트남 하띠이성에서 열린 해외취업센터의 ‘사전교육’ 현장. 이날 교육에선 ‘한국행’을 앞둔 47명의 예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수업이 한창이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사업주의 선별을 받은 노동자들로, 한결같이 ‘코리안 드림’에 부풀어 있었다. 열흘간의 ‘사전교육’을 마친 뒤 ‘E-9(비전문취업) 비자’만 받으면 꿈에도 그리던 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을 마친 이들과부터 한국 입국을 앞둔 베트남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들어왔다.

〈2부〉 코리안 드림 꿈꾸는 그곳에선

① ‘한국행’ 앞둔 베트남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한국 입국을 앞둔 3명의 베트남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밝힌 뒤 환한 표정으로 건설전문기술대학 교정을 걷고 있다. 왼쪽부터 엔하이 벤, 뷁티 마이, 딩 반부씨.



베트남 출신 예비 노동자들이 최근 하띠이성에서 열린 ‘사전교육’ 도중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이날 강의에서는 47명의 ‘한국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어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타이 응엔 출신 딩 반부(22·남)

“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 벌써부터 가슴 벅차”

타이 응엔 출신의 딩 반부(22)씨는 “한국은 삼촌이 일한 나라여서 잘 알고 있다”며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할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반부씨의 삼촌인 친(36)씨는 지난 2002년부터 4년간 한국에서 일했다. 친씨는 도로포장 업체에서 악작같이 일한 결과 2006년 귀국 당시 4만5천달러(4천700만원)를 벌어들였다. 현재 친씨는 고향인 타이 응엔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다. 그가 키우는 돼지 200마리는 고향 일대에서 가장 많은 것이어서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반부씨는 “삼촌은 항상 한국 생활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국생활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도 크지만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베트남 공업대학교에서 전기를 전공한 만큼 한국에서도 전기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며 “최근 베트남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을 배우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3년이나 6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면 전기 설비회사를 차릴 계획”이라며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의 사업이 필수적이어서 틈틈이 영어공부도 하고 있다”고 했다.

퓨터 출신 엔하이 벤(26·남)

“월드컵 한국 축구처럼 꿈은 꼭 이루어질 것”

하노이 인근 푸터지역 출신인 엔하이 벤(26)씨는 “한국은 평소 그 어느 곳보다 좋아했던 나라”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를 보면서 꼭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벤씨는 올해로 6년째 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직장생활과 한국어 시험 등으로 인해 반년이 꿈이 좌절됐다. 결국 벤씨는 지난해 말 마음을 다잡았다.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꼭 한 번은 일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가 ‘한국행’을 결심한 뒤 첫 번째 곳은 하노이의 한국어 학원. 3개월간 친구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한국어 공부에 매달린 끝에 가까스로 시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는 “3개월 동안 90달러(한화 9만4천원)나 주고 학원 수업을 받았지만 베트남 감사가 가르친 탓에 (한국)말을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다”며 “우여곡절 끝에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 업무로부터 선택도 받게 돼 흥분한다”고 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베트남 전문대학’에서 체육 강사를 했지만 한 달 월급이 60달러(한화 6만3천원)에 그쳤다”며 “전문학교를 다닐 때 학비를 내준 가족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흥엔 출신의 뷁티 마이(22·여)

“동경했던 한국문화 배우고 사업자금도 마련하겠다”

하노이서 60km 떨어진 흥엔지역 출신의 뷁티 마이(22·여)씨는 “선진 문화를 익히기 위해 늘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꿈이었다”며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한국의 문화도 많이 배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이씨의 꿈은 고품질의 화장품을 베트남 여성들에게 파는 것이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도 ‘한국행’을 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마이씨는 “베트남 여성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 화장품을 선호한다”며 “좋은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과 TV 속에서의 한국은 베트남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꼈다”며 “비록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면 만족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1남2녀 중 장녀여서 ‘한국행’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도 크다”며 “무엇보다 결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근심이 많지만 언젠간 이해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하노이=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프랑스가구 앤틱 & 원목가구

프랑스 원목가구

MD 8255 책상

MD 8447 테이블

※상판은 반으로 접을 수 있으며 서랍도 양면으로 있음

프랑스 앤틱가구

L 07006

L 07004

■원목가구 : 사랍면, 밑면, 뒷면까지 MDF, PB가 아닌 100% 친환경원목만을 사용한 가구 ■프랑스 앤틱 : 루이16세 시대의 프렌치스타일을 완벽 재현한 전통가구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홈스페이스 빌딩(구.도청 ~ 전여고사이)
문의대표번호 : 1544-0867 (주)프랑스스페이스

층별 안내

지하1 · 2층 - 365일 할인매장
1층 · 2층 - 이태리 프랑스앤틱가구매장
3층 - 신혼가구매장

4층 - 프랑스원목가구매장
5층 - 소파매장

금당부동산

☎ (062)223-7400 헨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엔터시너마 층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정가 70%이하

- 충장로3가공덕 단지77평 건물있음. 공시지가 3억2천만 원 신고리 4억천 매도2억5천
- 능성동 준주거200평 공시가9억7천 매도5억4천
- 임동7기 평 공시7억7천 원 상가100평 1억2천
- 백운동 대도변 단지126 건평229 평 공시7억7천 원 별墅 회사(육직합 4억 7천
- 나주시당, 여관 단지138 건평8억 매도3억5천
- 대안동 단지126 건평778 평. 임대료12억
- 동산동 소화도로코너 단지46 건평103 일부는 공실이고 전세3천 원582만 매도1억5천5백
- 금남로5가 대신동권역 30m대도변 80평 경매 물건 감정12억 대출4억2천 매도7억5천
- 임동 상가·목욕탕·여관 단지113 건평425 평 12억 전세 법인이전 이점비값음 6억6천
- 안마시소스. 노래방용 경매물건 우산동 단지 185 건평624 평상가 18억 매도 9억

감정가이하

- 대안동 단지100 건평367 노래방·PC방 원목·투룸 18개와 주택 45평 건물 투룸8개와 노래방. 주택은 공실이고 현재는 전세4천 원360 법인이전합 8억 3천
- 신안동 단지94 평 공시3억3천 매도2억4천
- 대안동 상가주택 단지121 건평308 매도4억6천
- 신안동모빌 단지85 2실21 대출2억 매도2억7천
- 북동동 단지123 건평220 공사7892천 매도4억
- 금남로5가 목욕탕 340평 법상가 9억 매도 5억
- 충장로3가 단지73 건평217 일부는 공실 전세 1억6천 월700 6층 건물 법인이전 12억
- 호남동 세무서 건너 대도변106평 9억6천
- 소촌동 331평 공시지가2억2천

투 자

- 백전동 단지124 주택은 수리해이해. 공시지가 매도9천4백만원
- 지산동 빌라부지 507평 공시7억4천 매도5억1000
- 다동도시공 미육동 575평 공시75억 매도5억4천

나주시 신포면 신재리 관리지역임대2800평 국유지400평도시공가는 복지시설등적합 3억6천

- 북구 두말타로 아파트 4200여세대 지점 4차선 도로면 내단지 195평 상가·확립등적합 7억천
- 장성군 삼계면 서창주거지 989평 1억천
- 고흥 나로도 우주단지7기 주거지303평 6500만원
- 화순도곡은전 국도상320평 가드직합 1억9천

매도·교환

- 능성동 특출한 빌라53평 대출1억매도 1억5900
- 공정부지 단양군 무정면 1050평 1억5백
- 나주 노안면 화산리 단지206 건평25 마트나 양층출입이피트와 교환가 1억6천
- 질(사할) 광산구 산정동 아파트와 상가지역 대지81 건평87 대출1억3천 매도2억9천
- 질(사할)광산수오거리 3층건물 1억6천
- 담양군 주월산 일 담양원에 접한 땅1090평. 별장·연수원·사할·요양병원직합 3억2천만원
- 영광 전월주매지 곡성읍 서거리 광주에서20분 대지483평 오피스텔아파트 상가와교환 6천만원
- 전월주매 나주 남평 광림리 한옥 2255평 9천만원
- 남구 칠석동(대출) 논1140평 교환가는 1억9천
- 묘지15기 민들리전. 담양군 봉산면 국도점 800평 양림리전. 광주에서10분 8천만원

이전만해갈 물건

- 중흥동 단지85평에 주택 2동있음 수리해이해. 공사7억5000 대출7200 매도6000
- 북구 우산동 단지70 건평150평 1층 15평 2층 40평 3층 주택은 전세7300만원은 주어야 함 감정3억5천 원해1억9천전 전세공실 매도8000만원
- 화순읍 신리리 3층 주택 단지72 건평120평 1층은 공실 대출1억7천 전세1억 매도5000만원
- 남광주시당 원동197개 대출1억3600 원동개 전세4천 원150만원 원동10개는 공실 매도8000만원

아파트 급매

- 지산동 삼성APT로입중 33평형 9,900만원(조정가능)